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교류중단·일장기 철거 등 日 경제 보복 맞대응

“속이 다 시원” vs “감정적 미봉책” 의견 엇갈려

일본 경제보복 조치 맞불 전략 “십년 묵은 체증 내려가는 기분” “반일정서를 조장하는 미봉책”



6일 오후 서울 중구가 일본 보이콧을 알리는 배너기를 설치했다가 불매운동은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비판에 배너기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각 구청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교류중단, ‘노 재팬’ 배너기 설치, 일장기 철거 등의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에 “통쾌하다”며 박수치는 시민이 있는 반면 “반일정서를 조장하는 미봉책”이라며 반대하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노(No) 재팬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깃발이 펼쳐졌다. 중구는 이날부터 보이콧 재팬 배너기 1100개를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관내 22개 로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둘러싼 시

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대한문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성수(41) 씨는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그동안 일본에 맨날 꾸드려 맞아 기분 나빴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며 엄지를 추켜올렸다. 이에 박모(31) 씨는 “일본 정부가 잘못된 건 맞지

만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한테는 좀 무례한 행동이다”며 “명동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 깃발 설치하는데 혈세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나 지원하라”고 일갈했다.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보이콧 재팬 깃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약 250개에 달하는 항의글이 게재됐다. 시민 백모 씨는 “국민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 불매운동을 진행해왔다”며 “관이 나서면 불매운동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꼬집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한복판에 노 재팬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1만2800여 명의 동의를 받아낸 상태다.

중구청 관계자는 “원래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를 게양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서울의 중심지로 항의의 뜻을 담아 전달하고자 배너기를 게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구는 결국 꼬리를 내렸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

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는 의사를 밝히며 배너기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2일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테헤란로, 영동대로 일대에 걸린 외국국기 251기 중 일장기 14기를 전부 떼냈다.

한편 시는 5일 일본 정부에 항의 표시를 위해 일본 지자체와 교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재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교적인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교류 중단은 전쟁을 하자는 말인데 시민단체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교류 중단을 검토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가 서로 싸우다 추락하는 이솝우화처럼 극단적으로 치닫는 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전북혁신도시에 출판산업 클러스터 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장 박물관·공연장·북카페 등 구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한 전북 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지역발전 전략에 따라 국내 출판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의 출판역량을 결합하자는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은 6일 ‘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이슈브리핑(203호)을 통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

호남권 출판 거점으로 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의 파주 출판산업단지, 경기권의 대구 출판인쇄정보밸리를 잇는 호남권의 전북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및 혁신도시 시시2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북은 출판산업 관련 자원이 집적돼 출판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적지라 할 수 있다.

전북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입지계수는 0.867로 전국 다섯 번째로 높고 한지와 조선시대 방각본 등 역사적 자산을 갖추고 있으며 한지산업진흥원, 고전번역원, 완판본문화원, 완주 삼례책마을

등 출판 관련 시설이 집적돼 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출판역사박물관, K-Book AR/VR체험관, 출판교육장, 출판창업보육센터, 북테크 비즈니스센터, 공연장, 북카페 등으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출판 산업이 1인1책, 소규모, 디지털 출판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전북이 선도하고 국내 출판 관련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전북을 K-Book 한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창작, 생산, 유통, 소비, 문화 향유의 출판문화라이프 사이클이 이뤄지는 산업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북재영 기자 bcy2020@

‘지하철 부정 승차’ 빅데이터로 근절한다

우대용 교통카드 데이터 추적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철 부정승차를 방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적인 이용패턴과 다른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 추정모델’을 만들어 부정승차를 적발할 계획이다.

시는 추정모델 구축을 위해 경로 우

대용 교통카드 데이터 한 달 치를 분석했다. 총 180만명의 이용자가 3859만건을 이용했다. 시는 전형적인 ‘직장인 패턴’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우대용 교통카드 데이터를 추적했다.

낮 시간대 주로 이용하고 평균 외출 시간이 5시간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적 이용패턴과 다른 대표적 유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목포시, 하반기 신규일자리 사업 지원나서

국비·사비 등 총 100억 예산 투입

목포시가 2019년 하반기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사비 등 총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목포시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추경을 통해 고용·산업위기 지역희망근로사업으로 국비 86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긴급히 추진하게 되었다.

시는 작년과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희망근로 52개 사업과 함께 공공근로 13개 사업, 지역공동체 5개 사업 등 총 70개 사업을 통해 1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전남 목포=김원우 기자 wonyoo9700@

서울시, 노들섬~용산 잇는 ‘한강대교 복단 보행교’ 공모전 시민 아이디어 하나로... 총상금 1억

일반·전문인 부분 나눠 진행



한강대교 복단(노들섬~용산이촌동). /서울시

서울시는 한강대교 복단에 노들섬과 용산을 잇는 보행 전용교 신설을 위한 ‘한강 보행길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강대교 남단 노량진과 노들섬을 연결하는 ‘백년다리’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이다.

시는 1·2단계 사업을 통해 노들섬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용산, 남으로는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보행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공모는 6일 오전 10시부터 9월 20일 오후 5시까지 일반과 전문가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기본구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총상금은 1억원 규모다.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1917년 한강 최초의 보행교로 개통했던 ‘한강 인도교’의 보행 기능을 복원하는 동시에 ‘음악 중심 복합문화기지’로 개장(9월)을 앞둔 노들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自부담금 면제된다

서울시, 최대 3000만원까지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 소유주들은 장치비의 약 10%(78만~443만원)를 내야 했다.

시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7종, 4만 9000대다.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31%(1만1000여 대)를 차지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7일 (수) 음력 : 7월 7일

수도권 날씨 30~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40 | 해질 / 19:36

연천 24/29, 동두천 24/29, 가평 24/29, 파주 24/30, 서울 25/30, 양평 24/31, 인천 25/30, 수원 26/31, 용인 26/31, 평택 24/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